

2015 / 10 / 16 (FRI)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소폭 상승.

美 금리인상 가능성 약화된 가운데 추가 경기부양 기대감에 투심 호전.

카카오가 급락하며 인터넷주가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대부분 상승세. IT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 주도.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조이시티,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정보인증, 웹젠, 위메이드, 더존비즈온 강세. 반면 동반매도세가 나타난 카카오 약세.

종목별로는 실적 부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카카오가 4.8% 하락 마감.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299.57	1.3%	-12.9%	-254 억	796 억
(코) 인터넷	19,306.73	-3.6%	1.3%	-46 억	-262 억
(코) IT S/W&SVC	2,210.32	-0.2%	10.6%	44 억	-264 억
(코) 소프트웨어	326.01	1.4%	32.9%	73 억	0 억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47.37	1.4%	0.3%
MSCI Internet	179.16	1.9%	17.3%
MSCI IT Services	124.27	0.9%	5.5%
MSCI Software	167.73	1.4%	2.5%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69,000	1.2%	-20.1%	83 억	-76 억
카카오	116,000	-4.8%	-6.1%	-46 억	-260 억
한국사이버결제	31,500	5.0%	18.0%	16 억	1 억
KG이니시스	18,350	0.5%	2.5%	-2 억	0 억
KG모빌리언스	15,550	0.6%	6.9%	1 억	0 억
사람인에이치알	20,150	0.5%	79.9%	0 억	0 억
KTH	9,010	3.2%	17.8%	2 억	0 억
아프리카TV	30,050	1.9%	12.3%	0 억	-1 억
SK컴즈	7,660	0.1%	15.2%	1 억	#N/A
KT뮤직	5,590	0.4%	3.7%	3 억	-2 억
다날	9,820	2.8%	21.2%	4 억	#N/A
에스24	12,000	-1.2%	72.2%	-3 억	-1 억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693.02	1.9%	30.6%
Facebook	95.96	2.0%	23.0%
Tencent	145.00	1.7%	28.9%
Baidu	150.24	3.6%	-34.1%
Yahoo	33.48	4.3%	-33.7%
LinkedIn	197.56	1.3%	-14.0%
Twitter	29.71	1.1%	-17.2%
Weibo	13.73	5.0%	-3.6%
SINA	43.62	0.7%	16.6%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95,000	1.5%	0.5%	60 억	84 억
SK	266,000	0.4%	24.6%	-112 억	50 억
다우기술	26,300	1.5%	120.1%	1 억	4 억
포스코 ICT	5,450	0.9%	2.8%	1 억	0 억
신세계 I&C	132,500	0.4%	18.3%	5 억	-5 억
동부	6,180	5.5%	146.2%	0 억	#N/A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50.09	0.1%	-6.5%
TCS	2,467.75	-0.6%	-3.5%
Accenture	102.30	-0.1%	14.5%
HP	28.77	-2.2%	-28.3%
Infosys	1,097.35	0.0%	11.3%
Wipro	577.10	-1.0%	3.9%
NTT Data	5,870	1.4%	30.0%
Fujitsu	566.20	0.0%	-12.1%
CSC	64.10	-0.4%	1.7%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83 억	SK	-112 억
삼성에스디에	60 억	카카오	-46 억
한국정보인증	34 억	엔씨소프트	-28 억
웹젠	18 억	컴투스	-10 억
라온시큐어	17 억	오픈베이스	-5 억
한국사이버결	16 억	위메이드	-4 억
NHN엔터	10 억	에스24	-3 억
한국전자인증	7 억	한글과컴퓨터	-3 억
신세계 I&C	5 억	인성정보	-2 억
다날	4 억	KG이니시스	-2 억
더존비즈온	4 억	알서포트	-2 억
넥슨지티	3 억	이니텍	-2 억
KT뮤직	3 억	유비케어	-1 억
파티게임즈	2 억	처음앤씨	-1 억
엡게임	2 억	벅스	-1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6,500	-0.8%	8.0%	-28 억	-5 억
EA	113,100	-0.3%	-6.2%	-10 억	-4 억
NHN엔터테인먼트	58,300	0.0%	-31.1%	10 억	-18 억
웹젠	32,300	2.5%	11.2%	18 억	6 억
위메이드	46,200	2.4%	22.2%	-4 억	2 억
선데이토즈	13,200	5.2%	-23.3%	0 억	2 억
액토즈소프트	39,200	-0.1%	17.0%	1 억	0 억
게임빌	70,300	1.4%	-41.8%	0 억	0 억
네오위즈게임즈	18,000	0.0%	-20.9%	-1 억	0 억
넥슨지티	13,300	4.7%	4.3%	3 억	-2 억
데브시스템즈	31,100	0.5%	-34.9%	0 억	#N/A
조이시티	25,700	6.4%	27.2%	-1 억	1 억
파티게임즈	42,900	-2.5%	64.7%	2 억	-5 억
조이맥스	23,750	1.7%	-13.0%	0 억	0 억
한빛소프트	6,800	1.0%	17.4%	1 억	#N/A
와이드온라인	8,950	2.8%	93.7%	-1 억	#N/A

Games

	close	1D	YTD
Nintendo	21,975	2.8%	74.3%
EA	70.97	0.6%	50.9%
Blizzard	33.80	2.4%	67.7%
NEXON	1,578	1.4%	40.3%
NAMCO	2,965	1.5%	15.6%
King	14.62	2.7%	-4.8%
Konami	2,720	1.5%	22.5%
Square Enix	3,175	0.3%	26.6%
GungHo	372	-0.3%	-15.6%
DeNA	2,256	-0.1%	56.0%
Sega	1,251	0.4%	-19.6%
Take-Two	31.89	3.6%	13.8%
Zynga	2.51	1.6%	-5.6%
Ubisoft	24.56	14.8%	61.9%
Gree	573	1.1%	-20.9%
Changyou	18.62	0.6%	-31.9%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에스디에	84 억	카카오	-260 억
SK	50 억	NAVER	-76 억
웹젠	6 억	NHN엔터	-18 억
다우기술	4 억	신세계 I&C	-5 억
유비벨록스	4 억	엔씨소프트	-5 억
위메이드	2 억	파티게임즈	-5 억
브리지텍	2 억	컴투스	-4 억
선데이토즈	2 억	KT뮤직	-2 억
한국사이버결	1 억	알티캐스트	-2 억
더존비즈온	1 억	넥슨지티	-2 억
조이시티	1 억	아프리카TV	-1 억
골프존	1 억	에스24	-1 억
크레듀	1 억	라온시큐어	-1 억
KG이니시스	0 억	한글과컴퓨터	-1 억
한국정보인증	0 억	드래곤플라이	-1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40,200	0.9%	19.3%	0 억	0 억
더존비즈온	20,250	2.3%	117.7%	4 억	1 억
한글과컴퓨터	22,400	0.7%	10.9%	-3 억	-1 억
골프존	92,100	-1.6%	264.8%	-1 억	1 억
안랩	43,700	1.0%	21.4%	1 억	0 억
한국정보인증	15,800	3.3%	354.7%	34 억	0 억
슈프리카	22,000	-0.2%	-13.6%	0 억	0 억
갤럭시아컴즈	6,140	2.3%	126.6%	0 억	0 억
지트리비엔티	10,350	-1.0%	200.0%	1 억	#N/A
MDS테크	23,750	2.2%	14.7%	0 억	0 억
오상자이엘	12,000	-0.4%	-9.8%	0 억	0 억
인피니트헬스케어	10,950	0.9%	51.2%	0 억	#N/A
케이사인	3,195	0.5%	29.9%	0 억	0 억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7.01	0.7%	1.2%
Oracle	37.55	0.8%	-16.5%
SAP	74.10	1.8%	6.4%
EMC	27.79	2.5%	-6.6%
Salesforce	77.70	2.8%	31.0%
Adobe	86.77	3.5%	19.4%
Vmware	68.46	0.7%	-17.0%
Intuit	92.43	2.2%	0.3%
Syantec	20.64	0.2%	-19.5%
CA	28.89	0.9%	-5.1%
Citrix	74.85	1.8%	17.3%
Autodesk	52.16	1.5%	-13.2%
Synopsys	48.03	1.0%	10.5%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카카오	-4.8%	실적전망

News & Issue

카카오, 실적 부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약세

3분기에도 실적부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이 둔화, 광고 비수기 효과로 광고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 게임 매출 역시 신규 카카오킴이 흥행이 9월부터 시작되어, 3분기 전체로는 전분기와 유사한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3분기 마케팅비용 감소와, 2분기 일회성 복리후생비 감소로 영업 이익은 전분기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로는 절반 수준.

9월부터 카카오프렌즈팝, 백발백중 등 신규 카카오 게임이 흥행하며 카카오 게임 매출이 반등하는 모습. 여기에 4분기 카카오 웹보드게임이 출시되면 매출 반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데아나도 미네이션즈 등 하드코어 RPG나 전략 게임의 경우 여전히 자체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경향이 높아 카카오가 게임 시장 내에서 예전 수준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 동안 테스트를 진행했던 카카오오더나 타임쿠폰 등 신규 O2O 서비스는 사업 타당성 문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 연내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등 1종의 교통 관련 O2O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나, 기존 업체들의 반발과 시스템 구축 작업 등으로 출시 시점의 불확실성 존재.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아직 예비인가 신청 단계로 선정 여부 및 수익 모델 확보 등에 대한 가시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

카카오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웹보드게임, 대리운전, 인터넷 전문은행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2016년 34.5배 P/E)에서 거래되고 있음. 그러나 시장에서 신규 사업 매출의 상당부분을 이미 수익 추정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출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IT서비스 IT Service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SK	0.4%	최근이슈

News & Issue

2,500억규모 우리은행 차세대 IT, SK가 무혈입성?

우리은행 2기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에 SK주식회사가 단독 응찰함에 따라 우리은행이 재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다시 나섰다. 이에 따라 25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우리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맥빠진 모습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SK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제안서 접수를 해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경쟁 입찰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14일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 요청 재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15일 제안요청서를 재교부하고 11월 4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이후 11일 제안발표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 1차 공고와 마찬가지로 SK주식회사 외에 다른 사업 참여 희망자가 없을 경우 우리은행은 SK주식회사와 우선협상과정을 거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경쟁자로 지목됐던 LG CNS는 '타 은행 차세대사업 참여를 이유로 이번 우리은행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 CNS는 현재 광주은행 차세대(2016년 11월 오픈 예정)와 농협중앙회와 상호금융 분리 IT사업, 그리고 하나은행-외환은행 IT통합 사업 등에 인력이 투입되어 있어 우리은행 차세대시스템 사업 참여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1월 입찰 예정인 330억원 규모의 수출입은행 차세대시스템 사업에도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LG CNS는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LG CNS 관계자는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금융사업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상태"라며 "다만 내년도 예정된 우리은행 정보계 시스템 사업의 경우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LG CNS는 올해 초 광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 은행권 대형 사업을 독식해 인력 운영이 한계에 이르면서 정작 대어로 꼽히는 우리은행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SK주식회사가 올 전반기의 부진을 한방에 만회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편 우리은행이 재공고에 나서면서 전체 일정은 다소 늦어지게 됐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우리은행은 13일 제안서 입찰을 마감하고 20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1월 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차례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11월 중순경부터 사업 착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11월 중 사업자 선정작업 마무리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전체 사업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조이스티	6.4%	최근이슈

News & Issue

조이스티, 모바일 보드게임 '주사위의 신' 글로벌 출시

조이스티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 보드게임 '주사위의 신'을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전 세계 동시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사위의 신'은 보드게임 장르가 가진 친숙한 재미를 기본으로 총 66종의 스킬 카드와 갈림길 요소, 황금 송아지 시스템, 통행료 강화 규칙 등 새로운 재미 요소들을 배치한 모바일 보드게임으로 역전의 재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매력적인 외형의 캐릭터, 화려한 주사위 효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로 잘 알려진 현지 성우들을 기용해 듣는 재미까지 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조이스티는 모든 국가의 주사위 신 이용자들이 하나의 서버 안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매칭 시스템과 다국어 지원, 이모티콘 도입 등 국가 간 언어문화적 장벽을 낮추는 요소도 적용했다.

소프트웨어 Soft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MDS테크	2.2%	최근이슈

News & Issue

MDS테크, 리눅스·안드로이드 전용 SW 디버깅 솔루션 출시

MDS테크놀로지는 영국의 언두 소프트웨어(Undo Software)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리눅스 및 안드로이드 전용 SW 디버깅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디바이스들의 기능이 첨단화되고 SW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코드 내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제조사들은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양산 테스트 혹은 제품 출시 이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고성능 SW 기반의 디버깅 방식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언두SW의 라이브 레코더(Live Recorder)는 리눅스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프로그램 수행 정보를 저장하는 트레이스 레코딩(Trace Recording) 기능을 활용, 디버깅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이다. 어플리케이션 수행을 멈추지 않고 프로그램 정보를 저장해 오류를 쉽고 빠르게 디버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이 솔루션은 ARM, 케이던스, 멘터 그래픽스 등의 글로벌 기업 개발자들로부터 디버깅 시간을 몇 주에서 단 몇 분으로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검증받았다는 설명이다.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6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0월 1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0월 1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